유로존 실업률 12%로 사상 최고치 경신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로존의 경우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상승하는 한편 제조업 생산 부문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2013년 1/4분기에도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을 예상됨.

- 유럽연합(EU) 통계청(Eurostat)은 2013년 2월 유로존 실업률이 12.0%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.
- 시장조사기관인 Markit Economics는 2013년 1~3월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가 46.6을 기록함으로써 2013년 1/4분기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황이라고 밝힘.

■ 2011년 4월 유로존의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각각 9.9%와 1,550,000명을 기록한 이후 22개월 연속 상승하여 2013년 2월 현재 유로존 출범 이래 사상 최고를 기록함.

- 유로존(17개국)의 2013년 2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0.1%p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.1%p 상승함.
  - 유로존 실업률 상승은 은행, 자동차 및 항공 회사 등이 비용 감축을 위해 일자리를 줄였기 때문임.
  - 유럽집행위원회(EC)는 유로존 실업률이 2013년 12.2%, 2014년 12.1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.
- 2013년 2월 유로존의 실업자 수는 19,071,000명으로 전월대비 33,000명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,775,000명 증가함.

■ 유로존의 실업률은 전 지역에 걸쳐 동반 상승하였는데, 이는 서유럽과 북유럽의 고용 여건도 악화되기 시작함을 의미함.

- 2008년 초까지만 해도 8%대를 하회하였던 남유럽[1]과 동유럽[2]의 실업률은 2013년 2월 각각 20.5%와 12.6%까지 상승함.
  - 남유럽은 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3.2%p 상승하여 역내에서 가장 크게 치솟음.

1) 그리스, 포르투갈, 스페인, 이탈리아.
2) 폴란드, 슬로바키아, 헝가리, 불가리아.

-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2013년 2월 실업률은 11.6%, 26.3%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.3%p, 2.7%p 상승함.
- 남유럽의 실업률 상승은 세계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, 긴축재정에 따른 내수 위축, 대외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에 기인함.

- 서유럽[3]의 실업률은 2013년 2월 6.8%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.6%p, 전월대비 0.1%p 상승함.
  - 독일의 실업률은 2월 현재 5.4%로 전년동월대비 0.3%p 하락하였으나, 프랑스, 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는 10.8%, 6.2%, 4.8%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.8%p, 1.3%p, 0.6%p 상승함.
  - 독일은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 증대에 힘입어 실업률이 낮아진 반면, 프랑스 등은 수출 부진,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실업률이 상승함.
- 2013년 2월 6.8%를 기록한 북유럽[4]의 실업률은 2012년 11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됨.
  - 북유럽의 실업률은 2012년 11월까지 6.6%대를 유지하였으나 12월부터 6.8%대로 상승함.

한편, 2013년 2월 현재 유로존의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23.9%, 청년 실업자 수는 358만 1,000명에 달해 청년 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.

- 남유럽(47.5%)과 동유럽(30.3%)뿐만 아니라 북유럽(17.2%)과 서유럽 일부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유로존 평균(23.9%) 실업률을 상회함.
  - 남유럽에서는 스페인(55.7%)과 그리스(58.4%)의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았고 포르투갈(38.2%)과 이탈리아(37.8%)의 청년 실업률도 30%를 상회함.
  - 동유럽에 속하는 슬로바키아(35.0%), 불가리아(29.1%), 폴란드(28.1%), 헝가리(29.0%)의 청년 실업률은 30%대에 근접함.
  - 스웨덴(24.5%)의 청년실업률은 유럽 평균(23.9%)을 상회 하였으며, 핀란드(19.9%)와 덴마크(14.8%)의 청년 실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 - 서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이 26.2%를 기록, 독일(7.7%), 오스트리아(8.9%), 네덜란드(10.4%)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둘러싼 혼란과 키프로스 구제금융 충격 등이 겹쳐 빠른 경기 회복세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청년실업률 상승은 사회 불안 고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.

(Eurostat 및 Markit Economics, 4/2)

3) 독일, 프랑스,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.
4) 스웨덴, 노르웨이, 핀란드, 덴마크.